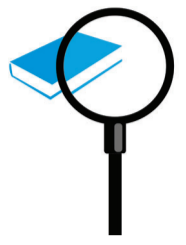


# 전통패션, '절제된 소박함'일까 '요염한 관능미'일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조선패션본색

채금석 지음

'조선 럭셔리' 가채, '품격의 완성' 쓰개, '겉걸의 억압' 치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상투와 땡기, '조선 패셔니스타' 기생...

조선 여성들의 옷차림에는 유교 관념이 투영돼 있다. 한편으로 조선 여성들의 의복은 이중성을 함의한다. '절제된 소박함' 이면에 '요염한 관능미'가 자리한다.

옷과 장신구를 아우르는 말을 복식이라 한다. 현대적 의미로는 패션이다. 그 시대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패션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철학, 정치, 경제, 예술 전반을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이 옷과 장신구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통 복식을 정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규격화된 제복이나 의례복으로 상징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한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의식 또한 맞물려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통의 복인 한복도 시대와 호흡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과



거에 박제된 복식이 아닌 현대의 문화와 삶을 반영하는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한복에 담겨진 이야기를 조명하는 '조선패션본색'은 전통 패션에 담긴 멋과 사상, 의미 등을 담은 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한복의 힙과 멋'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조선 여인들의 애환 속에서 빛을 옷과 장신구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숙명여대 채금석 명예교수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의 땡시',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복식고증재현을 했다. 채 교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복식문화 고대', '문화와 한디자인', '세계화를 위한 전통 한복과 한스타일'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저자는 남녀유별을 강조한 유교 이념이 조선 여인들의 생활과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의 이념과 시각으로 한복의 역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복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찬탄을 받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복'은 남녀구별이 없었다.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며 그것의 근간은 유교 이념이었다. 조선의 한복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깃들여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머리모양부터 상징의 의미가 달랐다. 하늘을 향해 솟은 남자들의 상투는 고대부터 조선까지 이어졌다. "하늘을 향한 여자들의 올림머리는 없어지고 모두 땅을 향해 아래로 드리운 쪽머리, 땡기머리로 변했다." 저자는 이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남녀유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땡기는 용도나 연령에 따라 상이했다. 궁녀들은 네 가닥 땡기, 팔뚝땡기 등을 사용했다. 일상용으로는 쪽땡기, 도투락땡기 등이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배씨땡기, 제비부리땡기 등을 착용했다.

머리술이 많아 보이기 위해 사용한 가채는 "뿔은 머리를 낮추지 않은 머리"를 일컫는다. 흔히 '다래' 또는 '다래'라고도 한다. 표준어는 '다래'이다. 그렇다면 가채의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저자는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올림머리 등을 보면 고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히 사대부집 여인들의 크고 높은 얇은머리는 부와 권력의 척도였다. 머리치장에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채 값이 치솟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쓰개는 머리 보호와 방한, 격식을 위해 머리에 쓰는 모자다. 조선의 여인들은 외출 시 의례와 방한 목적으로 쓰개를 착용했는데 이 또한 신분을 드러내는 표시였다.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방한용 쓰개로는 아삼, 조바위, 남바위, 굴레, 풍자 등 종류도 다양했다.

이밖에 책에는 조선 여인들의 방인 규방을 매개로 한 공예품 이야기를 비롯해 조선패션명품인 보자기,



조각보, 매듭, 주머니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저자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 규정화된 의미로 소화되는 모습이 안타깝고 불편하였다"며 "우리 복식이 품고 있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지식의 편지> 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레니와 마고의 백 년

매리언 크로닌 지음, 조경실 옮김

레니는 17세다. 그녀는 글래스고 병원 메이 병동에 누워 있다. 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은 그녀의 머리 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다. 스웨덴 출신의 레니는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첫 번째 생일이 첫 기억이다.

그러나 영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행복은 깨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새롭게 적응해야 했던 그녀만이 아니라 행복을 잃은 엄마도 멍한 눈으로 레니를 바라보고 있다. 아빠는 그런 엄마와 레니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소니 픽처스 영화 제작이 확정됐으며 전 세계 27개국 번역 출판된 작가 매리언 크로닌의 장편 '레니와 마고의 백 년'이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2022 '알렉스 어워드' 수상작에 선정됐으며 2021년 영국 '인디펜던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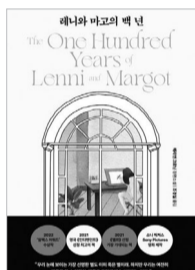
엄마는 갑자기 레니를 아빠에게 맡겨둔 채 홀로 스웨덴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레니의 '상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 결국 누군가의 곁에서 걸돌기만 하던 레니는 자신의 삶에서마저 걸도는 신세가 되어 시한부 환자 병동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레니는 그곳에서 신입 간호사, 계약직 직원, 미술실 선생님, 아서 신부님 그리고 마고를 만난다. 그 가운데 레니는 83세의 마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점차 자신의 삶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삶의 끝자락에 앉은 마고에겐 지난 83년이라는 세월이 채워져 있다. 마고는 사랑을 약속한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얼마 후 소중하던 아들을 심장마비로 잃고 만다. 17세와 83세의 생이 저무는 무렵의 온기와 백 년의 삶의 조각은 그렇게 잔잔한 이야기로 모아진다.

<해피북스투유> 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몸짓의 철학

이동영 지음

저자의 이력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고전어학부에서 라틴어, 고전희랍어를 공부하고 동대학교에서 철학, 신학, 유대종교 등을 공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루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이동영 교수가 주인공이다.

그가 이번에 펴낸 '몸짓의 철학'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에 대한 답론을 다룬다. "먹고, 자고, 싸고, 하고, 듣고, 말하는 것들의 의미"라는 부제가 책의 특징을 규정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앞서의 행위에 서 열의 될 수 없다.

저자는 그것들을 '몸짓'으로 규정한다. 몸짓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상의 순간들이 함의하는 영원의 차원을 통찰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른 관점으로 말한다면 일상으로부터 거룩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고투이자 헌신이다.

책은 32개의 철학과 사색의 화두를 펼쳐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편은 완결된 내용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소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 관심의 여부를 따라 자유롭게 읽기가 가능하다.

저자는 몸짓이야말로 인간의 일상을 구성하는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한다. '이념, 인종, 계급, 성별을 떠나 모든 인간은 몸짓, 즉 몸됨됨이를 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섹스하는 인간 몸짓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지노> 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

곤도 지로 지음, 김소영 옮김

이집트는 역사와 문화의 생생한 보고로서 영화와 소설, 각종 전시를 통해 알려져왔다.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겨지지 않는 피라미드의 크기만큼이나 이집트는 언제나 온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느껴지곤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는 미이라, 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까지 각종 미디어와 콘텐츠로 접한 캐릭터에 불과했다.

이집트라는 국가를 설명하는 책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이 발간됐다. 저자 곤도 지로는 와세다대학교 고고학 교수로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집트 각지 고대 유적 발굴 조사에 종사했으며 이집트 신왕국 시대 암굴 무덤을 조사·연구 중에 있다.

책은 총 5장에 걸쳐 이집트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파라오 200여명 중 15명을 가려 이들의 업적과 특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이집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라미드의 의미와 분포, 피라미드 만드는 방법 등 피라미드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담았다. 3장에서는 사후에 살아가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미래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4장에서는 이집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신전을, 5장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 패턴, 식생활, 오락, 패션 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실제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 당하는 노예가 아니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스핑크스에서 남동쪽으로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노동자들의 주거 흔적으로 보여지는 도시 유구가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공동 주택 형식으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도 마련돼 있었다. 곡물, 채소, 고기 등 식생활에 필요한 것 뿐 아니라 의류까지도 국가가 제공했다.



<더숲> 1만7000원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GWANGJU · NAJU

나주배 쌀빵  
Pearl rice bread

달콤주주  
달콤한 빵이 나요

₩13,000  
10,400 원

**담솔목주**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DAMYANG · MOKPO

담솔목주  
담양 목포 담양주

₩15,000  
12,000 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 01.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